

감동의 도가니 NO EYES DRY

2017.10.12.-11.11

감동의 도가니 (만월의 여인)

그녀는 술집에 들어가서 아무 것도 주문하지 않은 채 앉아있었다. 거의 바로 그녀의 모든 감각은 매우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다양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 감정들은 여전히 알 듯 모를 듯한 무거운 짐에 의해 모두 억압되어 있었다. 이러한 억압 때문에 모든 감정들이 조절되면서 마치 4차원이 2차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떤 것도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고, 이는 그녀에게 일시적인 신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느끼면서 동시에 느끼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또는 완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본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이런 이차원적 특성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적게 느낄수록 그것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고,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완전한 무에 가깝게 될 것이다. 만월 외의 다른 어떤 것이 내 영혼에 내재하는 것들을 무감각하게 할 수 있을까? 또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처럼 지속되는 완전한 무의 순간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전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감각의 논리적 흐름을 뒤집는 인위적인 씨앗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만월인가? 아니다. 이것은 만월이 아니다. 이것은 음악인가? 무슨 음악이지?

그녀는 아무말없이 주크박스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초점을 맞춰 곡의 제목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나와 그녀는 계속 주크박스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것은 한계가 없는 것 같다...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방에 떠다니는 먼지와 연기 사이로 주크박스를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몸을 돌릴 때까지 그녀의 어깨는 더욱 떨렸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곡...은... 만월...”

주저함 없이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흐르는 눈물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술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어두운 독백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가며 그 세계의 결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가 그 방 전체에 주문을 걸자 중력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았다. 사물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떠올랐고, 고요하게 그 방 안에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공간의 진공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고, 그 결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귀 아래쪽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친숙한 먼지 소리뿐이었다. 우리가 마시던 술도 술잔에서 벗어나 무언의 작은 무리를 이뤄 그 방을 부유하며 계속해서 변했다. 운동이나 진동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곳은 완벽한 진공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 앞에서

체리 와인과 맥주가 슬로모션처럼 합쳐질 때, 그녀는 자신의 귀 끝에 걸린 진주 귀걸이 한 개를 잡아당겼다. 마치 자물쇠가 열리는 것처럼, 그녀는 그녀의 일부를 잘라냈다. 피가 작은 일련의 방울들로 귀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온전한 빨간 빛을 반사하는 핏방울들이 진주에 튀자 핏방울들은 형태가 바뀌었고, 진주에는 핏자국이 남았다. 그녀는 진주에 다른 주문을 속삭였다. 그 작은 진주를 방 가운데에 놓기 전까지 그녀는 정확한 단어들을 계속 반복했다. 그녀는 진주가 흩어져있는 동안 마치 진주가 그녀의 주문을 들어야만 하는 것처럼 점점 크게 주문을 외쳤다. 그러나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진주는 커지기 시작했고, 진주의 고르지 않은 표면 이곳 저곳이 상당히 부풀어 올랐다. 마치 진주가 팽창하면서 공기에 매우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았다. 마치 풍선껍이 부풀어 오르듯 진주도 얇은 물질을 팽창시키는 것 같았다. 진주가 빠르게 부풀면서 표면이 고르게 되며 완벽한 원형에 이르렀다. 그 방 전체의 전기가 한꺼번에 깜박거렸다. 진주 역시 그에 맞춰 부풀어 올랐다. 마치 진주가 그 시설의 모든 전기를 다 빨아들이며 반지각적인 불빛으로 그 방을 밝히는 것 같았다. 이는 몇 분 전에 여인이 내면으로 생각한 만월에 대한 묘사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었다. 더 어두운 점들이 진주의 표면에 나타났고, 더 어두운 점들은 마치 희석된 잉크가 스며든 것 같았다. 이는 마치 시각적인 불균형을 통해 100% 단일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그 여인은 환호하며 소리질렀고 기세가 등등하여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현실의 갑작스러운 전도를 받아들이는데 바빴다. 그들은 할 말을 잃고 진주가 빛을 내뿜으면서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사람들과 모든 사물들이 주위를 떠다녔고 진주는 방의 구석구석을 비집고 들어가 그들 모두를 벽 쪽으로 밀며 으스러뜨렸다. 점점 부풀며 노란 벽을 밀고 있는 진주 뒤로 그녀의 얼굴이 사라질 때 그 여인은 만월이라고 속삭였다. 그것은 달이었다. 만월이었다.

- 루이 웨어피

NO EYES DRY (Fullmoon Woman)

She walked into a bar and sat down somewhere without having ordered anything to drink. Almost immediately she entered a state where her whole sentience was gathered on the very edge of any single piece of nearby sharpness, she underwent various layers of emotion but they were all suppressed by a translucent yet heavy cargo and the effect of this flattening was aligning all layers, as 4 dimensions experienced as 2 etc. Equally not felt was anything 'bad', which opened up the possibility of a personal temporary mystery; *now is it possible to feel and not feel at the same time... or... how is it possible to feel, so intrinsically and complete, a non-feeling? ... I think of this flatness as inexhaustible. The more I feel less, the longer it will last, closing in on the forever ungraspable point of perfect nullity. Is it full moon? What other than a full moon makes me thrive so in these no-vibes pulsing from everything inherent in my soul? What then, makes me outlive these enduring seconds of clear zeroship? And ultimately what makes me wholly fathom this encompassing ambience of the all-out incomprehensible? There must be an artificial grain of reversed quantum data flawing up the logic stream of this sentience, how else can I truly enjoy this withdrawal from traditional pleasure but not towards its exact opposite, but towards its promethean next. Is it full moon? No, it's not full moon. Is it the music? What is playing?*

She turned her head towards the jukebox and stayed quiet. Both our eyes rested patiently on the machine until her far-sight was done calibrating and she could read the title of the song from distance. *"It all seems... It all seems so limitless... I can read it perfectly."*

I was having trouble even noticing the jukebox through the dust and smoke floating around the room. Her shoulders started shaking slightly, then more, until she turned around. A terror rarely seen had conquered her face. She stuttered; *"the song...s full moon..."*

Things happened without much hesitation. The currency of her tears reached a pivotal point where everyone else in the bar understood the flawed nature of this different world they'd entered through her shadow's monolingual tongue. Everyone was listening now. She cast a spell on the entire room and pronto gravity was not upheld anymore, things slowly lifted off their place

and started floating around the room with tranquility. The spatial vacuum swallowed all sound and consequently all we could hear was the intimate crackle of dust falling softly onto the lower slopes of our ear canal. The liquidity of our drinks left the glasses and floated around the room in small, mute dusters that constantly changed according something else than motion and vibration since a vacuum has neither. Nobody understood. And just as some cherry wine merged into a pilsner in slow motion right in front of her, she pulled her single pearl ear ring straight out from the tip of her ear, cutting herself as the lock was pulled through the tiny hole. Blood began to geyser out her ear in small parading bubbles and she took the pearl and dabbed the perfectly red and reflective droplets with the pearl breaking their formation, smudging the pearl in blood. She whispered another spell at it, repeating the accurate words over and over before pushing the tiny pearl into the middle of the room, her voice gained strength as if the pearl had to be able to hear her chant while it floated away from her. But nothing could be heard in the vacuum.

The pearl started growing, its uneven surface swelling significantly various places as if it was inflated and reacted very differently to the air expanding its thinning material; like a bubble from bubble gum. While gaining size rapidly the pearl also evened its surface reaching a perfect round shape. the electricity in the whole room flickered collectively but so did the swelling pearl as if it sucked all the electricity from the establishment into itself and lit up the room with an anti-sentient glow perfectly matching the descriptions of the full moon woman's inner concept minutes ago. darker spots emerged on the surface of the pearl, darker spots as if a diluted ink was seeping through producing a visual imbalance to the 100% singular ambience. the woman cheered and screamed and clapped her hands in very high spirit. everyone else was busy accepting the sudden inversion of reality. mouths agape they watched the pearl continue to grow while emitting the glow as they floated around and into each other and into things until the pearl was pressing everything against the walls, squeezing itself into every single part of the room and crunching them all. *Full moon*, the woman's lips read as her face disappeared behind the still growing pearl pressed against the yellow wall. It was a moon. A full moon, indeed.